

제안 정책 : 'W.L.S' (We lead school) '우리가 이끌어가는 우리 학교'

학교명	두리(Douri)
학년, 반, 이름	제일고 2학년 김00, 인화여고 2학년 김00
유형	기존 정책 변경(수정)

정책 제안 활동 계획

문제 제기	<p>Q.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라는 학생자치의 본질적 의미를 교육공동체가 인식하고 있지 않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생자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의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적극적이지 않은 학생자치 지원과 수동적인 학생들의 모습을 해결하고자 학생을 강사로 하는 학생자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p>
	<p>Q. 이 문제가 어떤 불편함을 주고 있나요? 학생자치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 이해가 부족하고, 고민을 공유할 수 없어 수동적인 학생자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학생, 학교에서 바라보는 학생자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행사에 동원되는 것에 그쳐 본질적인 학생자치를 이루기 쉽지 않습니다.</p>
문제 원인 분석	<p>Q.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제 해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교육청에서는 학생 자치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학생 자치 매뉴얼 등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으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우며 학생 자치 교육은 이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만을 전달하고 있기에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며 효과가 미비합니다.</p>
	<p>Q. 문제와 관련한 정책을 찾아보세요. (교육청 홈페이지 등 검색) 교육청 학생 임원 선거 영상 제작(인천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포럼(서울시교육청),</p>
해결방안	<p>Q.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학생자치 의식을 함양을 목적으로 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학생자치를 직접 경험한 당사자가 직접 현실적이고, 진보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실천 활동</p>	<p>Q.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일까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기별 학생자치 세미나(ex. 방송 프로그램 '세바시' 형식) 및 활동 공유회 운영 2. 학생이 학생자치의 강사로 활동하며 학생 눈높이에 맞게 진행 (학생강사에게 학생자치 내용, 스피치, 디자인등 사전교육을 실시한후 파견) 3. 활동 내용과 강연내용을 매년 학생자치 도서로 출판하고 우수사례로 공유
<p>예산</p>	<p>Q. 해결 방안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생각해 봅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자치 전문 강사 육성 (학생, 교사, 교육청 관계자) - 분기별 학생자치 세미나(세바시 형식) 및 활동공유회 운영 - 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인근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서 학생회 활동공유 및 주기적인 강연회 진행 -> 예산 : 강연비, 간식비,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식비 3,000원*40명*4회=480,000원 식사비 8.000원*40명*4회=1,280,000원 - 학생) 강사 신청시 2인1조를 기본으로 공모방식으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학생자치네트워크(본청, 권역 5개 = 6개)와 함께 + 다문화(탈북민 포함) 대상 프로그램 운영 - 학생에게 스피치 교육, 이미지 메이킹, 학생자치, 디자인 교육 진행 -> 예산 : 강사들 강연비(강사 10만원*4명*5번*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를 4분기로 나눠서 지속적인 교육과 팔로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활동내용과 강연내용을 매년 연말 학생자치 도서 출판, 분기별로 학생자치 우수사례 학교 '교육청 홍보자료' -> 책자 : 1만*274교(유치원, 초등학교 제외)*1회 = 274만 <p>=> 총 운영 예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자 : 1만*274교(유치원, 초등학교 제외)*1회 = 274,000원 간식비 3,000원*40명*4회=480,000원 식사비 8.000원*40명*4회=1,280,000원 학생 교육용 강연비 100,000*4명*4번= 1,600,000원 분기별 강연회 강연비 100,000*4명*4회 = 1,600,000원 분기별 강연회 운영비용 2,000,000*4회 = 8,000,000원 <p>Total. 13,234,000원 (일천삼백이십삼만사천원)</p>

제안 정책 : 각 학교의 필요성에 따른 예산사용

학교명	인천고잔고등학교
학년, 반, 이름	3학년 윤00, 황00
유형	신규 정책 개설

정책 제안 활동 계획

문제 제기	<p>Q.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요?</p> <p>교육청에서 권고하는 사안을 필요성이 없음에도 모든 학교가 이행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불필요한 예산이 사용되고, 학교에 맞지 않는 공간이 생기거나 설치물이 생기고 있다. 따라서 주어진 예산을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학교에 알맞은 사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p>
문제 제기	<p>Q. 이 문제가 어떤 불편함을 주고 있나요? (또는 어떤 가치를 훼손하고 있나요?)</p> <p>관련된 예시로, 각 고등학교에 탈의실을 설치하라는 내용이 학교에 전달되었다. 몇몇 학교의 경우, 체육복 등교가 허용되면서 교복과 체육복을 갈아입을 일이 줄어들어 탈의실도 필요없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했기 때문에 정작 사용해야할 공간을 구성하지 못하고 낭비하게 되었다. 자치실, 텃밭, 채식 급식 등 학생복지 교육청 사업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던 탓에 학생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p>
문제 원인 분석	<p>Q.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제 해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p> <p>교육청에서 각 학교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일반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부 학생, 학부모들이 제안한 것에 대한 잘못된 일반화로 발생한 문제이기도하다. 또한 학교에서 교육청 사업을 신청할 때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불필요한 사용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p>
해결방안	<p>Q.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p> <p>1. 학교별 상황 고려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는 것도 좋지만 학교에 권고사항을 내린 뒤, 각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그 사안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화된 권고사안으로 인해 적절하지 않은 예산을 내려주는 것보다는 각 학교에 맞는 예산을 내려주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 사용에 도움이 되고 불필요한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p>

	<p>2. 학교 재학생들의 의견 수용 교육청에서 내려진 내용을 학교에서 필요여부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이행하기 전 재학생들과 학부모의 의견을 물어야한다.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이행사실과 이유를 학생들에게 공지해 주어야한다. 학교 선생님들 또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할지 같이 함께 고민해 보아야한다.</p> <p>2-1. 의견 수용 시스템 마련 학생복지 사업을 신청하기 전 재학생들의 의견 수용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스템은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 시 신청이 가능하게 한다. 시스템을 마련하고 휴대폰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p>
<p>실천 활동</p>	<p>Q.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일까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한 정책 제안 참여 활동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제 학생들의 의견을 알려야 한다. - 학교와 학생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 - '학교에 적용되는 정책들의 실태와 올바른 사용'에 대한 UCC를 만들고 알린다.
<p>예산</p>	<p>Q. 해결방안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생각해 봅시다.</p> <p>별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음</p>

제안 정책 : 쉬운 단어로 만나는 생활 법 수업!

학교명	임학중학교
학년, 반, 이름	1학년 전00, 1학년 구00
유형	신규 정책 개설

정책 제안 활동 계획

문제 제기	<p>Q.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요?</p> <p>- 갓 성인이 된 사회초년생들이 중, 고등학교 때 실생활에서 정말로 필요한 생활법 들(예를 들면, 계약서 쓰는 방법, 부동산 관련법, 근로기준법, 보험 관련법, 보증 관련법, 신용카드 등의 도난, 분실 관련법, 세금 관련법)을 자세히 배우지 못해서 부동산 사기를 당하거나 근로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등의 경제 관련 일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p>
문제 원인 분석	<p>Q. 이 문제가 어떤 불편함을 주고 있나요?</p> <p>- 우리는 취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써야한다. 만약 계약서를 쓰지 않을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 17조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부동산 계약서를 써야할 때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계약서 쓰는법(생활법)을 모른다면 위와 같은 계약서를 쓰는 상황에서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p>
문제 원인 분석	<p>Q.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제 해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p> <p>- 우리나라 교육과정 중에서 모든 학생들이 생활법과 관련된 수업 및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이 있지만 이과생들은 거의 수강하지 않으며 문과생들도 선택하여 배울 수 있는 과목이다. 또한, 중학생들은 이런 수업 뿐만아니라 정책을 접하기 어렵다. 이렇게 상황에 직면하여 공부를 하게 되는 것보다 조금 일찍 중학교 때부터 학습할 기회를 주어졌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p>

	<p>Q. 문제와 관련한 정책을 찾아보세요. (교육청 홈페이지 등 검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저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있다. - 또한 법무부에서 매년 법과 관련된 행사를 진행한다. - (법무부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법무부 주최 생활법 퀴즈 대회) <p>{출처 : 법무부 공식 블로그 청소년들, 모의재판 통해 사회를 뒤집다! (daum.net) https://blog.daum.net/mojjustice/8705181}</p> <p>{출처 : 법무부 공식 블로그 중학생, 법으로 소통하는 법! '생활법 퀴즈대회' (daum.net) https://blog.daum.net/mojjustice/8706352}</p>
<p>해결방안</p>	<p>Q.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단 생활법 교육 시간에 실생활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예로 든 후, 같은 유형의 사건을 대처하기 위해선 어떤 생활법을 알고 숙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생활법 뿐만 아니라 그 생활법이 어느 상황에서 어떤 데 사용되는지 그 상황까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 우리가 실생활에서 행하는 '계약서 (근로계약서, 부동산계약서) 작성하기', '공문서 작성하기' 등을 학교 수업에서 교육을 받은 후에 실제로 계약서 쓰거나 공문서 떼기 등을 해본다. 실제로 체험해 본 후엔 계약서 쓸 때 잘못된 점이나 고쳐야 할 점, 주의점 들을 서로 피드백 해주며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한다. - 학교에서 생활법을 접할 수 있는 교육 빈도를 늘리도록 한다.
<p>실천 활동</p>	<p>Q.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일까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로 기관에 가서 학교에서 담당 강사들을 초청하여 계약서 쓰기 등이나 공문서 작성하기를 하도록 하겠다. 또한 계약서

	<p>의 내용들은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그 당시의 학생들이 관심있어하는 주제로 선정하여 만들겠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법을 글로만 알려주는 것이 아닌 실제 사건을 학생들이 재구성하여 그 사건에 필요한 생활법을 알려주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 본다. - 생활법 수업을 받은 후에 학급이나 학교에서 생활법 퀴즈대회나 퀴즈 골든벨을 실시하여 생활법에 대하여 흥미를 높이는 이벤트를 개최한다. - 학교에서 상황극을 통해 직책을 맡고 직책에 맞는 일들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와 유사하게 만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보며 생활법의 활용을 높인다.
<p style="text-align: center;">예산</p>	<p>Q. 해결방안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생각해 봅시다.</p> <p>20학급 학교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사 초빙 비용 : 20명 X 2시간 X 8만원 = 교당 약320만원 -각종 계약서와 공문서 재료 : 교당 약200만원 -골든벨이나 퀴즈 대회 비용 : 교당 35만원 -총합 : 교당 약 555만원

제안 정책 : 학생요구를 반영하는 학년동아리 활동 지원

학교명	인천장도초등학교
학년, 반, 이름	5학년 김00
유형	기존 정책 변경(수정)

정책 제안 활동 계획

문제 제기	<p>Q.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요?</p> <p>우리 학교에서는 동아리활동으로 칼림바 악기연주, 연극수업을 하고 있음. 이 밖에 학생들이 원하는 다른 동아리활동이 있어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임.</p>
	<p>Q. 이 문제가 어떤 불편함을 주고 있나요?</p> <p>학생들은 학교에서 지정한 동아리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므로 학생들이 참여하고 싶은 다른 동아리활동보다 참여동기가 적어지고 집중도가 낮아질 수 있음.</p>
문제 원인 분석	<p>Q.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제 해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p> <p>문제발생의 이유는 동아리활동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시간인데도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학생에게 제한적으로 선택하게 함.</p> <p>문제해결의 책임은 선생님의 경우, 동아리활동을 개설하고자 할 때 학생이 희망하는 분야와 관심사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p> <p>예를 들어, 남학생의 경우 축구나 발야구처럼 활동적인 동아리 활동을 희망했으나 선생님께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하지 못했음. 또 여학생의 경우 댄스부서, 노래 부서 등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음.</p> <p>그런데, 학생들은 자신들이 희망하는 동아리활동을 선생님께 말하고 이러한 학생의 의견을 선생님들은 모아서 동아리활동을 개설할 필요가 있음.</p> <p>만약 학생의 의견과 선생님의 의견이 다를 경우, 학급회의나 학</p>

	<p>생자치회 등을 통해 투표로 결정할 수 있음.</p> <p>Q. 문제와 관련한 정책을 찾아보세요.</p> <p>학교 동아리 활동 운영비 지원(100만원)</p>
<p>해결방안</p>	<p>Q.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p> <p>첫째, 학교에서는 우선적으로 학생의 흥미와 관심사를 반영하기 위해 동아리활동에 대한 요구조사를 실시하면 좋겠음.</p> <p>둘째, 학생과 선생님은 이러한 학생요구조사 결과를 모아 함께 학생희망 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음.</p> <p>셋째, 학생이 희망하는 동아리활동이 학교에서 개설 가능한지 살펴야 함.</p> <p>넷째, 교육청은 학교마다 학생이 희망하는 동아리활동부서 자료를 모아 한눈에 보이도록 학생희망 동아리활동 지도를 만들 필요가 있음. 이를 다시 학교에 보내 학생들이 희망하는 동아리활동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매년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음.</p>
<p>실천 활동</p>	<p>Q.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일까요?</p> <p>학교에서는 학생관심사를 반영하여 동아리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생에게 동아리활동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왜냐하면 동아리활동의 주체는 학생이기 때문임.</p> <p>첫째, 학생은 학생들이 원하는 동아리활동에 참여하도록 의견을 나누고 만약 동아리활동 개설에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 투표 등의 방식으로 의사결정해야 할 때 적극 참여해야 함.</p> <p>그리고 학생들은 동아리활동 개설에 대해 요구조사를 할 때, 선생님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함.</p> <p>또는 학생자치회에서 여러 학생들이 희망하는 동아리활동에 대한 학생 의견을 모아 선생님들께 제시할 필요가 있음.</p> <p>둘째, 교사는 학생의 흥미와 관심사가 반영된 학생동아리활동이 개설되도록 학생의견을 충분히 듣고,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함.</p> <p>만약 학생자치회에서 의사결정 하게 된다면 선생님이 퍼실리테</p>

	<p>이선 역할을 수행해 주어야 함. 동아리 개설이 가능한 목록을 학생에게 사전에 공지함.</p> <p>만약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경우, 학생이 원하는 동아리 활동 목록에 대해 선생님과 학생들이 (온라인, 전자)투표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지도해 주어야 함.</p> <p>셋째, 학생들은 이상의 선생님 안내와 교육청이 제공한 목록을 참조하여 학생자치회에서 학생의 전체의견을 수렴하여 정식 개설을 학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의견을 조율하여 동아리활동 부서를 확정함.</p> <p>넷째, 교육청은 학생의견을 반영한 동아리부서를 운영하도록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함.</p> <p>이때 교육청은 학교마다 학생들이 희망했던 동아리활동부서 자료를 모아 동아리활동 희망목록(또는 희망지도)을 제공하여 학교에서 참고하여 선택하게 기회를 제공함.</p> <p>교육청은 이러한 방식으로 학생주도형 동아리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를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함.</p>
<p>예산</p>	<p>Q. 해결방안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생각해 봅시다.</p> <p>학생주도형 동아리 운영학교를 선정하여 예산 지원함. 예산지원: 선정학교 X 100만원~300만원 지급 (단, 예산규모는 한 학년당 100만원 기준)</p>

제안 정책 : 담당 기관을 통한 체험프로그램 추천 및 진로 지도

학교명	옥련여자고등학교
학년, 반, 이름	1학년 권00, 인00, 최00
유형	신규 정책

정책 제안 활동 계획

문제 제기	<p>Q.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요?</p> <p>- 현재 학교 수업은 선생님의 말을 그대로 받아적고 외우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러한 교육방식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나가기에 충분하지 않다. 학교는 학생들의 진로 방향을 최대한 빨리 설계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흥미/적성에 맞는 진로와 대학 및 학과를 알아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개인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기관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p>
	<p>Q. 이 문제가 어떤 불편함을 주고 있나요?</p> <p>- 학교에서는 자신의 진로와 연관을 지어 활동하는 프로그램이 많아 아직 진로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p>
문제 원인 분석	<p>Q.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제 해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p> <p>- 정부랑 학교 측에서 운영하는 진로 연관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부족해서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체험이나 프로그램을 찾기가 힘들다.</p>
	<p>Q. 문제와 관련한 정책을 찾아보세요. (교육청 홈페이지 등 검색)</p> <p>- 현재 교육부에선 고등학생들의 각 진로/진학에 맞는 학습 방법과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 사례들을 담은 학습 컨설팅 가이드북과 진로 직업 체험 활성화를 위한 현장직업체험처들의 정보가 담겨져 있는 가이드북을 발간했다.</p>

<p>해결방안</p>	<p>Q.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은 학생들의 진로 설계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소개시켜주고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야한다. 전문적인 진로 상담 센터와 함께 각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 상담을 돕고, 대학과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연계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대학교를 탐방하거나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연결해주는 기관이 필요하다. 현재 각 학과를 소개하는 온라인 사이트는 활성화되어 있으나, 그것만 보고 결정하기엔 충분하지 않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흥미/적성에 맞는 진로지도 프로그램과 대학 탐방 프로그램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담당 기관은 학생들이 대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과를 찾을 수 있도록 희망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교, 대학 교수, 대학생 등과 연결하여 대학교를 탐방하거나 온라인으로 교수, 대학생과 소통하며 적성에 맞는 학과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p>실천 활동</p>	<p>Q.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일까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 개개인에 맞춘 진로 상담과 그에 관련된 많은 체험 및 탐방 프로그램을 연결해주는 기관을 홍보하는 포스터와 캠페인을 진행한다. - 학생들의 진로 방향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학생들은 직접 대학생들과 면담을 나누거나 설문조사를 하는 등 학과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관련한 UCC를 제작한다. - 학과를 정한 학생들은 자신의 희망 학과를 소개하는 SNS 등을 통해 캠페인을 펼쳐 갈팡질팡하는 학생들의 진로 설계에 도움을 준다. SNS를 통해 릴레이 대학 소개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학과를 소개하는 팸플릿을 제작하여 학생들이 지나다니며 볼 수 있게 복도에 전시한다.
<p>예산</p>	<p>Q. 해결방안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생각해 봅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에 위치한 주요 대학 약 20곳 * 300만원(체험 프로그램 지원 비용) + 개인별 맞춤형 상담 지원 약 2000만원(진로 상담 센터 지원금) = 약 8000만원

제안 정책 : 자유학년제에서 미리 만나는 특성화고 전문 분야

학교명	인주중학교
학년, 반, 이름	3학년 황00, 백00, 김00
유형	기존 정책 변경(수정)

정책 제안 활동 계획

문제 제기	<p>Q.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요?</p> <p>- 2013년 정부는 학생들의 끼와 잠재력을 발현할 기회를 공교육 내에서 찾겠다는 취지로 '자유학기제'를 도입했다. 청소년 성장단계를 고려할 때 정체성을 확립하고 적성과 소질의 탐색 등을 위한 시간을 갖기에 중학교 단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실상은 자유학년제가 학생들의 진로 설정이나 미래 구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p>
문제 원인 분석	<p>Q. 이 문제가 어떤 불편함을 주고 있나요? (또는 어떤 가치를 훼손하고 있나요?)</p> <p>- 2021년 5월 5일 종로학원에서 자유학기제 경험자 2,8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82%가 "적성 탐색 도움 안돼"라고, 28%가 "성적 저하시켰다"의 답을 했다. 또한 자유학기제 선택 수업으로 네일아트, 캘리그래피, 로봇, 드론, 3D 펜, 3D 프린팅, 보드게임,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학교 재량으로 다양한 수업이 진행되지만 이 같은 수업은 진로 선택 보다는 단순 취미나 체험 활동에 그친다는 점, 그리고 학교에서 정한 몇 가지 중에 정해야하며 그마저도 다른 친구들에게 밀린다면 자신이 관심 없는 수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불만이 많다.</p> <p>Q.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제 해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p> <p>- 현재 자유학년제 수업에서는 원래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수업에서 조금 확장된 수업이나 미술, 체육, 음악 등 학생의 인성이나 감성 역량을 함양하는 수업, 그 외 동아리 활동, 진로 탐색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있다. 하지만 현재 특성화고에서 배우고 있는, 또는 연결된 과목은 배우고 있지 않아 그</p>

	<p>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어떤 특성화고에서 어떤 과가 개설되어 있는지, 어떤 실습을 하는지 알아차리는 경우가 태반이며, 어떤 친구들은 특성화고가 무엇을 배우는 곳인지조차 모르고 있기도 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p> <p>Q. 문제와 관련한 정책을 찾아보세요. (교육청 홈페이지 등 검색)</p> <p>- 자유학년제 : 중학교 1-1학기, 1-2학기, 2-1학기 중에 선택해 실시하여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과 연계된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하고 다양한 탐색 활동을 편성·운영하는 제도</p> <p>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5339</p>
<p>해결방안</p>	<p>Q.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p> <p>- 인천시에는 다양한 분야의 직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특성화고가 있다. 이러한 특성화고에서 전문적으로 자신의 직업 분야에 대해 실습하고 공부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자유학년제가 효용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직접 특성화고 수업과 연계한 자유학년제 수업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패션과, 조리과, 제빵과, 전기과, 비서과 등에서 접할 수 있는 수업을 중학교 현장으로 끌어왔으면 한다.</p> <p>이를 위하여</p> <p>① 해당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자유학년제 진로 탐색프로그램의 배정 시수를 현행보다 자유롭게 편성 가능한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하며,</p> <p>② 실습을 위한 물품 구입 및 강사 고용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p> <p>이를 통하여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이자 더불어 특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경험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p>
<p>실천 활동</p>	<p>Q.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일까요?</p> <p>- 기존 자유학년제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건의 사항, 개선 사항 등 여러 의견을 받아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유학년제의 문제점을 보완한 후, 새로운 자유학년제의 방식과 목적을 UCC 및 포스터 등의 홍보물을 통해 홍보한다. - 특성화고에서 수업하는 직업 분야에 대해 간단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자유학년제 수업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 도움을 주고,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예산	<p>Q. 해결방안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생각해 봅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 초빙비(시수 및 프로그램의 수에 따라 변동) 시간당 50,000원 * 36시수 * 10개 프로그램 = 학교당 1,800만원 정도의 인건비 - 물품 구입비